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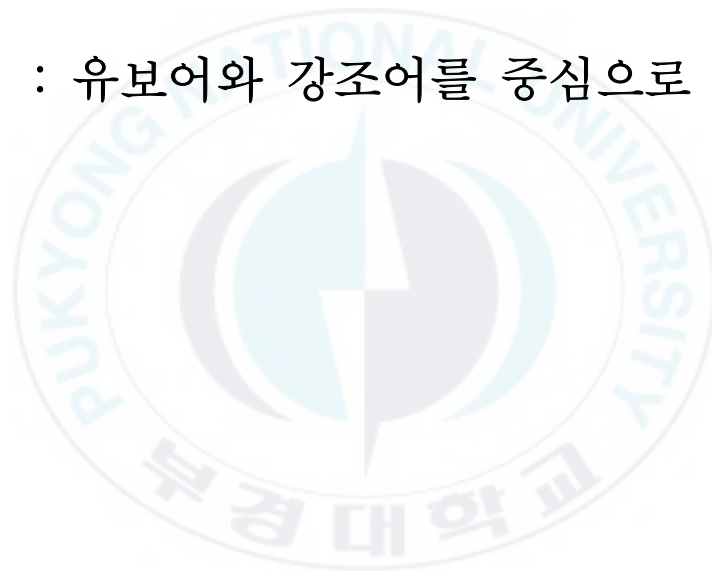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 학위
논문에 나타난 상위담화 비교 연구
: 유보어와 강조어를 중심으로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숙 현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 학위
논문에 나타난 상위담화 비교 연구
: 유보어와 강조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지 원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숙 현

정숙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6
2.1. 상위담화(metadiscourse)	6
2.1.1. 상위담화의 정의	6
2.1.2. 상위담화의 분류와 기능	7
2.2. 유보어(hedges)와 강조어(boosters)의 개념과 분류	11
2.2.1. 유보어의 개념과 기능	11
2.2.2. 강조어의 개념과 기능	12
2.2.3. 본 연구에 유보어와 강조어 분류 기준	13
2.3. 연구 방법	18
2.3.1. 분석 자료	18
2.3.2. 분석 방법	18
III. 결과 및 논의	21
3.1. 발생 빈도와 단어 개수	21
3.1.1. 전체 발생 빈도	21
3.1.2. 유보어 빈도	24
3.1.3. 강조어 빈도	25
3.1.4. 단어 개수	26

3.2. 어휘 분석	27
3.2.1. 유보어 상위 빈도 어휘와 특징	27
1) 서법성과 개연성	29
2) 동시성	34
3) 선호 동사	36
4) 비인칭 구문	38
5) 선호 부사	40
3.2.2. 강조어 상위 빈도 어휘와 특징	41
1) 편중된 동사 사용	42
2) 인지 동사의 부족	43
IV. 결론	45
참고문헌	48
부록1	52
부록2	54

표 목차

<표1> 상위담화 표지 분류표	9
<표2> 총 단어 빈도수와 유보어, 강조어 빈도	22
<표3> 논문 각 영역의 유보어 빈도	24
<표4> 논문 각 영역의 강조어 빈도	25
<표5> 총 단어 개수와 유보어, 강조어 단어 개수	26
<표6> 상위 빈도 유보어	27
<표7> 서법 조동사의 확실성	29
<표8> 인식 범주에 따른 어휘 활용 양상	31
<표9> 논문 분야별 조동사 빈도	32
<표10> 논문 영역별 최대 선호 유보어	33
<표11> 한국인 ‘should’를 제외한 논문 영역별 최대 선호 유보어	34
<표12> 비인칭 구문 원빈도	38
<표13> 상위 빈도 강조어	41
<표14> 강조어 동사 사용 비율	44

그림 목차

<그림1> 용례색인 예시	20
<그림2> 총 단어 발생 수와 어휘 목록 관찰 빈도	22
<그림3> 유보어와 강조어, 태도어의 조합	35
<그림4> 한국인의 ‘it seems that’ 발생	37



**The Use of Hedges and Boosters in Doctoral Dissertation
between Korean EFL Learners and English Native Speakers**

Sookhyun J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Korean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learners' overall awareness of metadiscourse and pragmatic competence. For this, it examined 20 Ph. D theses and investigated the way in which they used hedges and boosters; 10 were written by Korean EFL students and the other 10 were written by English native research students. Due to the fact that the writing style can be affected by writers' major, data were collected from 3 different field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Business, Engineering. It used a corpus of over 2,000 pages and 0.54 million words.

The findings in the quantity analysis show that both Korean students and English native speakers use more hedges than boosters in their doctoral dissertation. As for using hedges, Korean EFL students employ more hedges than English native speaker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n students are much conscious of readers' evaluation, so they are cautious when they claim a proposition.

The quality analysis suggests that Korean EFL students and English native

speakers have different preference of employing words. In the use of auxiliary, English native speakers prefer 'may', but Korean students like 'should' the most. The Korean students' use of 'should' indicates their lack of pragmatic competence, because they use 'should' with the same meaning as 'must'. In addition, Koreans do not prefer using 'know' and 'think' but intensively employ 'show'. Moreover they frequently use impersonal phrase to indicate the proposition is not a personal opinion. Consequently, it can be said that Korean EFL students can not utilize diverse verbs and they are reluctant to write a strong assertion.

Through the use of hedges and boosters, Korean students reveal their pragmatic competence and vocabulary skills are not enough. It means they are not bad at English writing but unskilful at applying appropriate words in writing. To achieve better pragmatic competence, explicit education on the concept of metadiscourse and the pragmatic function of vocabulary not limited to dictionary meaning should be recommendable.

I. 서론

Malinowski(1923)는 언어가 단순히 사고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Gumperz(1977)의 이론에서 소통의 언어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모든 메시지는 문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기본 메시지(basic message)와 화자의 실제 의도를 내포하는 숨겨진 의미인 메타메시지(metamessage)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고,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은 청자로 하여금 기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려주는 메타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메시지는 결코 혼자 해석될 수 없으며 반드시 맥락화 신호(contextualization cue)를 통해 전달되는데, 맥락화 신호란 특정 상황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문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원활한 소통은 문자적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화자의 의도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에는 문자 이외에 추가되는 정보가 있어 화자의 표정이나 손짓,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적 자료가 없는 ‘텍스트’에 의한 정보 전달에서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a. However we can see the remarkable increase in their number in 1999, approximately ten times as large as that of 1993. (김민정, 2010)
- b. Animals are capable of doing many things. Perhaps your goldfish swims to the surface looking for food when you move near its tank. (김민정, 2010)
- (2) a. Well, she thought it was certainly worth a try. (김민정,

2010)

- b. They have to wear goggles to protect their eyes from snow blindness. Of course, they cannot play golf with a white ball on an ice field because the ball would be too difficult to see. (김민정, 2010)

예문(1a)에서 글쓴이는 ‘approximately’로 대략적인 범위만 제시하여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드러냈고, (1b)의 필자는 금봉어가 보이는 행동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확신이 아닌 가능성임을 ‘perhaps’를 통해 나타낸다. 반면 예문 (2a)는 ‘certainly’가 주어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2b)의 ‘of course’는 얼음판에서 흰색 공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필자의 견해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 글로 하는 정보 전달에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드러내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이다. 예문에서 살펴본 단어들은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명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태도까지 함께 읽어내어 명제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지 판단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의도대로 전달하고 독자를 원하는 결론까지 안내하여 필자와 독자가 상호 작용(interactions)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상위담화(metadiscourse)¹⁾이다.

Hyland(2005: 39)는 상위담화가 단순히 명제적 내용을 뒷받침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담화는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언어 사용자들 간에 상호 작용을 포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담화가 한낱 부속물이 아니라 언어 사용 목적에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위담화를 통한 필자와

1) metadiscourse의 한국어 표기법은 메타담화(김철규, 2009) 혹은 상위담화(엄철주 외, 2009)로 쓰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엄철주 외(2009)가 ‘meta’의 사전적 뜻을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후자를 따른다.

독자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Crismore(1989)와 Hyland(1998)는 필자가 어떻게 텍스트에 개입하고, 반대로 독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텍스트에 개입되는지를 보여준다.

Dahl(2004)은 필자의 사용 언어와 학술 분야 중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로 된 경제학, 언어학, 의학 분야에 180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학과 언어학에서는 영어와 노르웨이어가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상위텍스트(metatext)를 사용하였고 의학 분야에서는 세 언어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영어와 노르웨이어는 필자 중심 문화이고, 프랑스어는 독자 중심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학과 언어학은 국가의 문화를 보다 중시하여 논문의 형태가 덜 정형화 되었고, 의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하는 IMRD(서론-방법-결과-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언어에 상관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로써 필자의 전공 분야나 문화, 지역에 따라 상위담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상위담화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가치를 시사한다.

이 밖에도 학교 교과서 분석(Crismore, 1984)과 대학원생 학위논문 연구(Bunton, 1999), 대학 학부 교과서 분석(Hyland, 2000) 등으로 텍스트에 장르별 상위담화의 발생을 분석하여 이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구들이 있다.

반면 국내 연구에는 논문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의 상위담화 사용을 분석한 Park(2006)과 엄철주 외(2009)가 있고, 영자 신문을 기반으로 논설문에서 나타난 상위담화의 양상을 비교한 김철규(2009)와 Kim. S(2010)가 있다. 또한 김민정(2010), 김계문(2014)은 개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상위담화를 분석하였고 Kim. H(2014)는 잡지 발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블로그를 자료로 원어민과 한국인의 글쓰기에 나타난 상위담화 표지를 비교 연구하였다. 세분화 된 상위담화 연구에는

Ryoo(2008)가 국내외 언어학에서 발간된 학술지를 통해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의 예시어(code glosses) 사용을 분석하였고, Kim. D(2013)는 한국인 박사 논문에서 나타나는 유보어(hedges)의 양상을 원어민과 비교하였다. Kim. D(2013)의 유보어 분류 기준은 Salager-Meyer(1994)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Hyland & Tse(2004) 모델을 차용한 본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196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해외와는 달리 국내 상위담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이에 대한 개념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국내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 상위담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때문에 영어 글쓰기 수업은 대부분 문법 위주의 구성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전에 명시된 한국어 번역에만 의존하여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는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 Thomas, 1983)를 겪곤 한다. 하지만 Bouton(1999)이 보여준 4년에 걸친 연구 결과는 비원어민 화자의 화용 능력이 명시적 지도를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화용 능력 교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한국인 학습자도 상위담화 교육을 통해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단어의 화용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위담화의 개념을 알리고 화용 인식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글쓰기에서 필자의 태도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되는 유보어와 강조어를 중심으로 한국인 학습자와 원어민의 사용을 비교 분석하고 어휘 양상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위담화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것의 기능별 분류와 하위 항목을 알아본

다. 이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위담화 분류 기준을 소개하고 코퍼스 자료와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3장에서는 양적 분석으로 발생 빈도를 비교한 후 질적 분석으로 유보어와 강조어에 나타난 어휘 양상을 특징별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2.1. 상위담화(metadiscourse)

2.1.1. 상위담화의 정의

상위담화는 Harris(1959)가 처음 용어를 만들어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Williams(1981: 212)는 상위담화를 글쓰기에 관한 글 쓰기 또는 다루고 있는 주제를 언급하지 않는 어떤 모든 것으로 규정했고, Vande Kopple(1985: 83)은 명제적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독자가 자료를 조직하고 분류, 해석, 평가 혹은 반응하도록 돕는 단어나 구로 정의하고 있다. Crismore(1983: 2)는 상위담화를 담화에 관한 필자의 담화라고 언급하고 이는 담화 속으로 필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명시적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독자에게 알리기(inform) 보다는 안내(direct)하는 것으로 독자가 필자의 견해를 잘 이해하고 근본적인 담화에 도달하여 필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게 하는 지시들로 설명하고 있다. Hyland는 이전 학자들의 정의가 상위담화의 분석과 분류에 불분명함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Hyland, 2005: 37).

Metadiscourse is the cover term for the self-reflective expressions used to negotiate interactional meanings in a text, assisting the writer (or speaker) to express a viewpoint and engage with readers as members of a particular community.

그는 담화에서 발생하는 상위담화 어휘들이 항상 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상위담화로 분류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이전 연구들의 정의와 자신의 것에 분명한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Hyland, 2005: 38).

1. metadiscourse is distinct from propositional aspects of discourse;
2. metadiscourse refers to aspects of the text that embody writer-reader interactions;
3. metadiscourse refers only to relations which are internal to the discourse.

즉 상위담화는 담화의 명제적 측면과 구별되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텍스트의 양상을 가리키고 오직 담화 내에서의 관계를 지칭한다. 특히 상위담화가 텍스트와 내재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외적 관계(external relation)와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로 구분하고 이것이 상위담화와 명제적 기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주장한다(Hyland, 2005: 45-48).

2.1.2. 상위담화의 분류와 기능

김철규(2009)에 따르면 상위담화는 선행 연구자인 Williams(1985)와 Vande Kopple(1985), Cresmore et al.(1993)에 의해 텍스트적 상위담화(textual metadiscourse)와 대인관계적 상위담화(interpersonal metadiscourse)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초기 상위담화의 개념이 Halliday(1994)의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자인 텍스트적 상위담화는 “필자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명제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응집되고 일관된 텍스트를 이루고, 또 각각의 명제를 이루는 요소들을 텍스트 내의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결합시켜 하나의 의미를 이루어 내는가를 보여주며” 후자는 “필자가 쓴 텍스트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필자의 반응과 필자의 성향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며 필자가 독자와 텍스트의 내용에 관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을 특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Hyland(2005: 43)는 텍스트성(textuality)은 담화의 기본적인 성질이며 텍스트적 상위담화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명제와 필자의 이해를 연결시킴으로써 독자 또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끌어들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대인관계의 이분법적 분류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위담화가 기본적으로 독자의 지식과 텍스트적 경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모든 상위담화는 대인관계적이라고 언급하고 상위담화를 독자이해 지원표지(interactive resource)와 독자관여 유도표지(interactional resource)로 구분하고 있다²⁾. 독자이해 지원표지의 기능은 “help to guide reader through the text”로 정의하여 텍스트 안에서 독자의 안내를 돕는 표지이고, 독자관여 유도표지는 “involve the reader in the argument”로 독자를 논쟁에 개입시키는 표지이다. 하위 항목은 <표1>과 같다.

2) ‘인터랙티브 리소스(interactive resource)’와 인터랙셔널 리소스(interactional resource)’는 원래 Thompson(2001)이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writer-reader interaction)’을 위해 언어 장치들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개념이다. Thompson에 의하면 전자는 필자가 독자를 안내하기 위해서 텍스트 내의 정보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장치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텍스트 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하여 필자가 평가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텍스트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 주는 언어 장치를 뜻한다(김철규, 2009).

<표1> 상위담화 표지 분류표(Hyland & Tse, 2004)

구분	표지 종류	예시
독자이해 지원표지 (Interactive resources)	논리어 (Transition)	in addition, but, thus, and
	구조어 (Frame markers)	finally, to conclude, my purpose is to
	지시어 (Endophoric markers)	noted above, see fig, in section 2
	출처어 (Evidentials)	according to X, Z states
	예시어 (Code glosses)	namely, e.g., such as, in other words
독자관여 유도표지 (Interactional resources)	유보어 (Hedges)	might, perhaps, possible
	강조어 (Boosters)	in fact, definitely, it is clear that
	태도어 (Attitude markers)	unfortunately, surprisingly
	참여어 (Engagement markers)	consider, note that, you can see that
	관여어 (Self-mentions)	I, we, my, our

논리어(transitions)는 주로 접속사나 부사구가 포함되는데 독자로 하여금 논쟁의 단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로 첨가(예: and, moreover, furthermore, by the way)나 비교(예: similarly, equally, likewise, in the same way, correspondingly), 대조(예: in contrast, however, but,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또는 결과의 단계(예: thus, therefore, consequently, in conclusion)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구조어(frame markers)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아닌 담화행위, 즉 논쟁의 순서(예: first, then, at the same time, next)를 나타내는 것으로 담화의 구조적 정보를 제공하

여 독자에게 담화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단어들, 예를 들어 ‘to summarize, in sum, by way of introduction’이 포함되며, 담화의 목적을 언급하는 ‘I argue here, my purpose is, the paper proposes, I hope to persuade,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와 화제를 전환하는 ‘well, right, OK, now, let us return to’ 같은 표현들이 이에 속한다. 지시어(endophoric markers)는 해당 텍스트에서 다른 부분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출처어(evidentials)는 다른 텍스트로부터 차용하거나 인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예시어(code glosses)는 이미 언급한 내용을 바꿔 말하거나 설명하고 부연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유보어(hedges)와 강조어(boosters)는 이어지는 소단원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태도어(attitude markers)는 필자의 감정적 태도, 즉 놀람이나 동의, 중요성, 의무, 불만 등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도 동사인 ‘agree’나 ‘prefer’, 형용사로는 ‘appropriate’나 ‘logical, remarkable’이 이에 속한다. 참여어(engagement markers)는 명백하게 독자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주위에 집중하고 담화의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관여어(self-mentions)는 1인칭 대명사와 소유격을 사용하여 텍스트 안에 필자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필자가 특정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이라고 한다.

2.2. 유보어(hedges)와 강조어(boosters)의 개념과 분류

유보어와 강조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확실성을 나타내며 주장에 개입을 보류하거나 강화한다. 또한 대안적 의견을 열어두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발화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글쓰기에서 필자가 명제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독자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위담화 표지 중 유보어와 강조어의 능숙한 활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2.2.1. 유보어의 개념과 기능

영어 단어 ‘hedge’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 또는 ‘대비책’의 뜻으로 명제에 단정을 보류하여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어조를 부드럽게 하여 정중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유보어는 자신을 반영한 언어학적 표현으로 인식 서법성(epistemic modality)을 나타내거나 발화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Holmes, 1988). 이것은 필자가 명제에 대한 단서를 달 때 사용될 수 있으며(Vande Kopple, 1985),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거나(Crismore et al., 1983) 개입을 보류하여 다른 관점에 대한 논의를 열어두는 기능을 한다(Hyland, 2005). 유보어의 예는 (3a-c)와 같다.

- (3) a. The study has several potential sources of error that might influence the data outcomes. (E³)10, 서론)

3) 원어민 화자를 E로 한국인 학습자를 K로 표기하고 숫자는 논문 번호를 의미한다(부록1 참조).

- b. Most of the students blamed their poor skills in dictionary use for their difficulties, which is probably due to their lack of familiarity with their dictionaries. (K3, 결론)
- c. This may be likely due to the fact that the deficit was more severe, and thus impacted learning and generalization with both treatment applications. (E1, 서론)

예문 (3a)에서 ‘might’는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오류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장의 정확성을 보류하고 있으며 (3b)에서 필자는 학생들이 사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원인을 ‘probably’를 통해 불확실성으로 나타냈다. (3c) 또한 ‘may’와 ‘likely’로 명제에 대한 원인의 확신을 낮추고 있다.

2.2.2. 강조어의 개념과 기능

강조어는 유보어와 반대로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신이나 이를 강조하는 장치이다. 이는 발화의 강도를 높여주고(Holmes, 1984) 명제의 확실성이나 주장의 자신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Holmes, 1988). 또한 명제에 대한 필자의 개입을 나타내고(Crismore et al., 1993) 주장의 태도를 강화하여 다른 대안적 견해를 차단한다(Gillaerts & Van de Velde, 2010). 즉 강조어는 가능한 대안을 봉쇄하여 확실성을 강조하고 논지에 대한 개입과 독자와의 결속을 나타냄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한다(Hyland, 2005). 강조어의 예문은 (4a-c)와 같다.

- (4) a. Hospital image definitel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employment brand equity. (K7, 본론)

b. The unit being measured was teams and therefore team composition was certainly an important issue when attempting to predict a team's score on a business simulation. (E8, 본론)

c. This will no doubt necessitate the added and meticulous attention of educators. (E10, 결론)

필자는 예문 (4a-c)에 나타난 강조어로 주장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독자로 하여금 명제에 대한 다른 주장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

2.2.3. 본 연구에 유보어와 강조어 분류 기준

상위담화의 분류는 Hyland & Tse(2004)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표1 참조) Hyland(2005)가 부록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발견된 상위담화 표지 단어라고 제시한 어휘 목록을 참조하였다(부록2 참조). 앞서 본 정의에 따라 유보어는 명제에 대한 확신을 보류하고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능의 장치이고, 강조어는 이와 반대로 확신이나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단원 2.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위담화는 반드시 텍스트와 내재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 Of our small British birds, perhaps this is the most common and well-known, as it frequents the dwelling of man and even lives in the heart of great cities. (bird guide, Hyland, 2005: 48)

‘perhaps’는 명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유보어이지만 예문(5)의 경우는 상위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 나타난 ‘perhaps’는 담화 외적인 부분, 즉 실제 세상(real-world, Palmer, 1990)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6) a. It is possible that Strauss will also pull out of the tour to Zimbabwe this winter. (newspaper, Hyland, 2005: 48)

b. A Travelcard makes it possible to visit all these sites in one day. (London guide, Hyland, 2005: 48)

예문(6a)의 ‘possible’은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나타내어 상위담화의 기능이고 예문(6b)는 특정 상황에 의존해 도출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를 의미하고 있어 상위담화 표지가 아닌 명제적 어휘에 속한다. 유보어나 강조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더하기 위해 구조어의 예를 보자.

(7) a. Firstly, the importance of complete images in compression is described in section one. Secondly, predictors used for lossless image coding are introduced. Thirdly, the results and analysis are us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mpression. (PhD dissertation, Hyland, 2005: 47)

b. Firstly,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 the first segment (N1) and the second segment (N2) were combined and a ‘pooled’ regression conducted. Secondly, individual regressions of the two periods were carried out. Then, finally, the F test was applied... (PhD dissertation, Hyland, 2005: 47)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 단어이지만 예문(7a)는 필자가 담화 구조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한 필자 행동(writer acts, Bunton, 1999)의 상위담화이고, 예문(7b)는 필자의 행동이 아닌 연구 행동(research acts, Bunton, 1999)으로 논문이 어떻게 쓰일지와는 상관없는, 단순히 과정을 기술하는 명제적 어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세웠다.

첫째, 명제적 어휘를 구별한다. 대부분의 단어는 명제적 어휘와 상위담화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명제적 어휘는 제외한다.

- (8) a. Implementing a case study approach for this research was not appropriate because a case study focuses on describing individual actions or human behavior around a central event or phenomenon (Leedy & Ormrod, 2005; Salkind, 2003; Schram). (E10, 본론)
- b. Four subjects responded correctly to all of the filler items(100 scores), two subjects answered to the fillers with 90% correct responses, another two scored around 80%. (K4, 본론)

예문(8a)의 ‘around’는 명제적 어휘로 사용된 경우라 제외되었고 예문(8b)의 ‘around’는 정확한 수치에 대한 필자의 확실성을 보류하는 상위담화 기능을 하여 유보어로 분류한다.

- (9) a.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that differentiates the business model theory from traditional

products and services theory, is sustainability (Boons & Ludeke-Freund, 2012). (K5, 본론)

- b. For narrow focus, the participants exhibited a change of approximately 30% or higher in vowel duration for pre-accented and accented words, especially those in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Groups, who learned English most of the time in an EFL context. (K1, 본론)

예문(9a)의 ‘most’는 필자가 ‘가장’의 의미로 주장에 대한 확신을 더하고 있어 강조어에 해당하지만 예문(9b)는 ‘대부분’의 의미인 명제적 어휘로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담화와 내재적 연관성이 없는 텍스트 밖 실제 세상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은 제외한다.

- (10) a. The EVA calculation depends heavily on invested capital, and it is therefore most applicable to asset-intensive companies that are generally stable. (K9, 본론)
- b. QFD has been generally characterized by practitioners as a system engineering approach [Akao, 2004; Dean, 1992] and a complement to the systems engineering process. (E5, 본론)

예문(10a)의 ‘generally’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유보어에 해당되지 않고 예문(10b)는 필자의 해석으로 주어에 대한 확실성을 낮추어 언급하고 있어 유보어에 해당한다.

- (11) a. Students may express what they feel, or may reveal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comprehended a new concept (Bafille, 2005; Wollman-Bonilla, 2000). (E1, 본론)
- b. In such a scenario, the participant could have felt anxious and/or provided untruthful accounts of his or her experience. (E3, 본론)

같은 유형으로 예문(11a)는 실험자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는 명제적 어휘로 유보어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문(11b)는 실험자에 대한 필자의 추측으로 유보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단일 저자의 연구로써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류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2.3. 연구 방법

2.3.1. 분석 자료

연구 대상은 두 그룹으로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이 쓴 박사 학위 논문이다. 화용 능력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실력이 상위 레벨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대개 100페이지정도의 박사 논문을 외국어로 쓰는 것이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박사 과정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인 영어 원어민 역시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같은 단계로 정하였다.

전공 분야가 어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영어영문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세 분야에서 2000년 이후 작성된 논문을 무작위로 대략 40편 수집하였다. 이 중 텍스트 파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과 도식이 너무 많거나 길이가 지나치게 짧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영어학에서 4편, 비즈니스 3편, 엔지니어링 3편으로 한국인 학습자 10편, 영어 원어민 10편, 총 2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부록1 참조). 국내 자료는 RISS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해외 자료는 RISS의 해외DB통합검색⁴⁾을 통해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2.3.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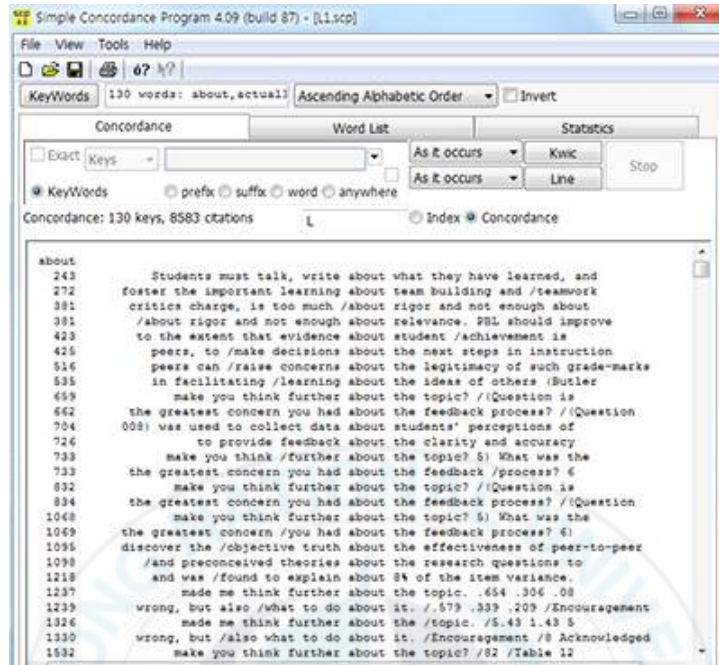
첫째, 수집한 자료로 한국인과 원어민 두 집단의 코퍼스를 구성한다. 먼저 모든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분석 대상이 아닌 단락별 제목과 목차, 참조 문헌, 부록, 감사의 글, 후기 등을 삭제하였다. 그런 다음 논문

4) PQDT(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을 4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일반적인 논문 구성에 따르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는 서론과,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를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결론이 가장 수사적이기에 상위담화 표지 중 독자관여 유도표지의 사용이 서론과 결론에 많을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상대 빈도수(Frequency Per Million Words) 측정으로 텍스트 분량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순한 기준으로 일괄되게 분류하였다⁵⁾.

둘째, 완성된 코퍼스를 이용해 발생 빈도를 측정한다. 앞서 언급한 어휘 목록(부록2 참조)의 총 168개 단어(유보어 108개, 강조어 60개)를 키워드 리스트로 만들어 용례색인(concordance) 프로그램⁶⁾에 대입한 후 한국인과 원어민 코퍼스에서 각각 얼마나 출현하는지 원빈도(raw frequency)를 확인하였다. 용례색인 프로그램의 예는 <그림1>과 같다.

-
- 5) 초록을 첫 번째 영역으로 정하고 서론(introduction)으로 표기된 부분을 두 번째 영역으로, 주관적 의견 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부분인 연구 방법(method, methodology)이나 이전 연구 및 이론적 배경(literature review), 자료 분석 결과, 발견 내용(data analysis, result, findings) 등은 본론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conclusion)과 논의(discussion), 제언(recommendations, suggestion), 후속 연구(further research) 등을 마지막 영역으로 분류하여 논문을 초록, 서론, 본론, 결론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 6) Simple Concordance Program 4.0.9: 워드와 비교했을 때 발생 빈도 측정이 가장 정확하다. AntConc version 3.4.4: 빈도 측정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관찰된 어휘를 클릭하면 본문으로 바로 연결돼 특정 단어의 발생 환경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그림1> 용례색인 예시

셋째, 본문을 분석한다. 용례색인으로 찾은 단어가 상위담화로 기능을 하는지 문맥을 통해 확인한 후 아닌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엑셀로 수치화 했으며 이 판별 과정에 앞서 2.2.3에서 언급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about’의 경우 한국인과 원어민 코퍼스에서 총 859회 관찰되었지만 이 중 상위담화로 사용된 것은 총 62회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진 원빈도수를 웹 기반 프로그램⁷⁾을 통해 상대빈도수로 변환하여 객관적 수치를 비교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p값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7) Corpus Frequency Test Wizard(<http://sigil.collocations.de/wizard.html>): 이 프로그램은 chi-squared(X^2)와 log-likelihood(G^2) 테스트 가운데 데이터에 적합한 테스트를 스스로 선택하여 측정하며, 표준 임계값(critical value)을 기준으로 두 테스트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제시한다(서창숙 외, 2010).

III.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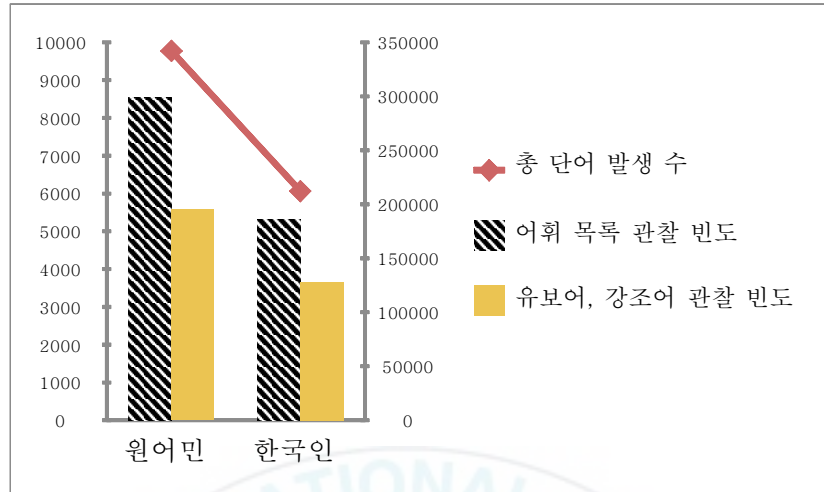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한국인과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나타난 유보어, 강조어 빈도와 사용된 단어 개수를 비교한다. 이후 어휘 분석을 통해 두 비교 집단이 사용한 유보어와 강조어의 단어 목록을 확인하고 그 차이와 발생 양상을 살펴본다.

3.1. 발생 빈도와 단어 개수

3.1.1. 전체 발생 빈도

빈도를 통한 양적 분석에서는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강조어보다 유보어의 사용이 많아 논문에 주장을 펼치는데 조심스러운 특성을 보였다. 이는 연구 자료가 박사 논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유보어 사용은 한국인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두 비교 집단의 총 단어 빈도는 원어민이 342,117회, 한국인이 212,214회로 박사 논문의 단어 발생 수는 영어 원어민 화자가 더 높았다. 이 중 어휘 목록의 관찰 빈도는 원어민이 8,546회, 한국인이 5,312회로 원어민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유보어나 강조어의 관별 과정을 거친 후 집계된 수치는 원어민이 5,581회, 한국인이 3,664회로 역시 영어 원어민 화자의 빈도가 높았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총 단어 발생 수와 어휘 목록 관찰 빈도

한국인은 원어민에 비해 논문 전체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양도 적고 관찰된 유보어와 강조어의 빈도 또한 낮았다. 영어 모국어 화자와의 비교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논문의 분량 차이와 어휘 사용량을 고려하여 상대 빈도 측정으로 유보어, 강조어의 사용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총 단어 빈도수와 유보어, 강조어 빈도⁸⁾

	원어민	한국인	유의도
유보어와 강조어 총 빈도	5,581(1.6%)	3,664(1.7%)	<.01
유보어 관찰 빈도	3,273	2,225	
상대 빈도	9,567	10,485	<.001

8) 관찰 빈도, 발생 빈도는 모두 특정 단어가 나타난 횟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원 빈도(raw frequency)이며, 상대 빈도(Frequency Per Million Words)는 백만 단어 기준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밀도(density)를 보여주는 값으로 텍스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어의 객관적 사용을 비교할 수 있다.

강조어 관찰 빈도	2,308	1,439	
상대 빈도	6,746	6,781	not sig.

<표2>에서 보듯이 상대 빈도수 측정 결과, 강조어는 원어민 6,746회, 한국인 6,781회로 사용량에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유보어는 한국인이 백만 단어 당 10,485회 사용하여 원어민의 상대 빈도 9,567회보다 밀집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엄철주 외(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엄철주 외(2009)는 이것을 한국인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자신의 주장이 독자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좀 더 여지를 남겨 놓고 학술 공동체의 가치 체계에 따라 자신의 진술이 평가되고 해석됨을 의식하여 필자로서의 조심성과 겸손함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로 Park(2006)은 한국인이 원어민보다 유보어를 적게 사용해 어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EFL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분석하고 있다. Kim. D(2013)도 한국인의 낮은 유보어 활용은 글쓰기에서 주장에 명확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확실성의 단계를 잘못 인식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그렇게 때문에 유보어의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전 많은 연구(Park, 2006; 엄철주 외, 2009; Hyland, 2010; Kim. S, 2010; Kim. S & Uhm. C, 2013)의 공통적인 결과는 원어민과 한국인 모두 강조어보다 유보어의 사용이 많은 것이다. 본고를 포함해 논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는 아직 검증된 학자가 아닌 박사 과정의 학생으로서 평가를 의식한 조심성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3.1.2. 유보어 빈도

유보어 빈도가 논문의 어느 영역에서 높았는지, 그리고 앞서 2.3.2에서 언급한 것처럼 논문의 서론과 결론이 가장 수사적이라고 할 때 과연 유보어의 사용이 서론과 결론에서 많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분의 총 단어 수를 이용하여 상대 빈도를 측정하였다. 영역별 발생 단어 수는 원어민이 초록 3,201회, 서론 64,591회, 본론 228,714회, 결론 45,611회였고, 한국인은 초록 4,482회, 서론 12,798회, 본론 172,888회, 결론 22,046회였다. 비교 값은 <표3>과 같다.

<표3> 논문 각 영역의 유보어 빈도

유보어	관찰 빈도		상대 빈도		유의도
	원어민	한국인	원어민	한국인	
초록	29	37	9,060	8,255	not sig.
서론	569	127	8,809	9,923	not sig.
본론	2,081	1,723	9,099	9,966	<.01
결론	594	338	13,023	15,332	<.05

앞서 전체 빈도와 동일하게 한국인의 유보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본론과 결론에서만 측정되었다. 본론의 총 단어 발생 빈도가 원어민 228,714회, 한국인 172,888회이었으며, 결론의 총 단어 발생 빈도는 원어민 45,611회, 한국인 22,046회로 본론이 결론에 비해 단어 발생수가 5~7배가량 많았음에도 유보어의 상대 빈도 측정값이 결론에서 크게 나타나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이것으로 텍스트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결론에 필자의 태도, 특히 명제의 단정을 보류하는 유보어 사용이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3.1.3. 강조어 빈도

강조어의 영역별 밀집도는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본론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론에 사용 빈도가 높았던 유보어와 다른 결과이다. 본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한국인의 사용이 더 많았고, 결론에서 한국인이 원어민보다 강조어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은 Bcak(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인 수치는 <표4>와 같다.

<표4> 논문 각 영역의 강조어 빈도					
강조어	관찰 빈도		상대 빈도		유의도
	원어민	한국인	원어민	한국인	
초록	16	23	4,998	5,132	not sig.
서론	295	61	4,567	4,766	not sig.
본론	1,701	1,210	7,437	6,999	not sig.
결론	296	145	6,490	6,577	not sig.

흥미로운 점은 원어민이 서론에서 4,567회, 초록에서 4,998회 강조어를 사용했고 한국인이 서론 4,766회, 초록 5,132회로 두 집단 모두 서론보다 초록의 강조어 밀집이 높다. 초록이 논문과 별개로 하나의 장르로 인정되고 이에 중요성 또한 연구되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할 때(Gillaerts & Van de Velde, 2010; Hu, 2011) 초록에서 강조어를 통해 필자의 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논문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3.1.4. 단어 개수

어휘의 구체적인 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관찰된 단어 개수를 측정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전체 단어 개수는 원어민이 11,438개, 한국인이 8,943개로 원어민의 어휘 개수가 많았으나 이 중 어휘 목록 168개에 포함되는 단어는 원어민 81개, 한국인 80개로 두 집단이 사용한 유보어, 강조어 어휘 종류는 유사하였다. 전체 논문에서 나타난 유보어와 강조어의 단어 개수는 <표5>와 같다.

<표5> 총 단어 개수와 유보어, 강조어 단어 개수(types)

	원어민	한국인
총 단어 개수	11,438	8,943
유보어, 강조어 총 개수	81	80
유보어 개수	52	53
강조어 개수	29	27

원어민이 유보어 52개, 강조어 29개로 총 81개가 관찰되었고 한국인은 유보어 53개와 강조어 27개로 총 80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앞서 전체 빈도와 유사하게 두 비교 집단 모두 강조어보다 유보어 어휘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한국인의 어휘 사용이 원어민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Hyland(2005)가 제시한 어휘 목록의 단어만을 측정한 수치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찰된 각각의 어휘 활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를 이어지는 어휘 분석에서 살펴보자.

3.2. 어휘 분석

빈도 분석으로 논문의 장르적 특성에 의한 한국인과 원어민의 유보어 편중을 확인하였다. 이번 소단원에서는 상위 빈도를 통해 유보어와 강조어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한국인과 원어민의 어휘 선택에 선호 차이와 특징적인 단어의 발생 양상을 살펴본다.

3.2.1. 유보어 상위 빈도 어휘와 특징

관찰된 전체 유보어 중 상위 빈도 15위까지의 목록은 <표6>과 같다. 비율은 전체 유보어 발생 빈도(표2 참조)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15위 이하는 1% 미만으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표6> 상위 빈도 유보어

	원어민	상대 빈도	비율	한국인	상대 빈도	비율
1	may	1,374	14%	should	1,154	11%
2	indicate* ⁹⁾	973	10%	may	1,032	10%
3	would	804	8%	seem*	876	8%
4	suggest*	786	8%	suggest*	674	6%
5	should	696	7%	possible*	655	6%
6	could	643	7%	would	598	6%
7	feel*	476	5%	indicate*	584	6%
8	possible*	459	5%	could	561	5%
9	often	441	5%	often	391	4%
10	rather	322	3%	rather	363	3%
11	likely	266	3%	might	339	3%
12	might	251	3%	argue*	273	3%

13	appear*	149	2%	about	236	2%
14	estimate*	146	2%	assume*	236	2%
15	approximately	132	1%	appear*	221	2%

이 중 한국인에게만 나타난 유보어는 ‘broadly’와 ‘from this perspective, ought to’ 3가지였고 반대로 원어민만 사용한 유보어는 ‘perhaps’와 ‘in most instances’였다.

한국인과 원어민의 최대 빈도 유보어는 ‘can’이었으나 대부분 예문(12)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의 명제적 어휘로 나타나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12) Processes that are dynamically stable can adapt to the changing needs and requirements of customers and maintain their stability over a wide range of external conditions. (E5, 본론)

또한 ‘will’은 한국인 학습자에서 ‘can’ 다음의 최상위 빈도로 나타났고, 원어민에서도 ‘may’ 다음으로 많은 사용을 보였으나 이전 어떤 논문에서도 ‘will’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가 없고, Hyland 어휘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보어나 강조어로 분류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유보어에 해당할 것 같지만 확실성에 관한 연구(Hyland & Milton, 1997)에서는 ‘will’을 강조어에 가깝게 분류하고 있어 ‘will’의 상위담화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제외하고 원어민의 ‘may’ 선호는 Park(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원어민에게만 나타난 ‘perhaps’와 한국인의 ‘possible*’ 선호는 Hyland & Milton(1997)과 Park(2006), Kim. S(2010), Kim. H(2014)가 동일하게 언

9) 단어의 변형을 포함하는 경우 asterisk(*)로 표기한다.

급하여 원어민과 한국인의 글쓰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should’ 사용은 이어지는 소단원에서 따로 다루도록 한다.

1) 서법성과 개연성

유보어 상위 빈도 15위 안에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조동사를 포함하고 순위 또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동사의 서법성(modality) 연구를 몇 가지 참고하였는데, 먼저 정희정(2009)은 서법성이란 “일반적으로 명제 또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나 심정을 나타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조동사의 사용은 필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 서법 조동사는 화자의 판단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된다고 한다(김희나, 2012). 서법 조동사가 나타내는 확실성의 정도를 비교한 <표7>을 참조해 보자.

<표7> 서법 조동사의 확실성(김희나, 2012)

a. That <i>must</i> be Sydney.	High certainty
b. That <i>will</i> be Sydney.	↕
c. That <i>should</i> be Sydney.	
d. That <i>may</i> be Sydney.	
e. That <i>could/ might</i> be Sydney.	Low certainty

김희나(2012)에 따르면 ‘will’은 필연성보다 확신의 단계가 낮은 예상성을 나타내고 ‘should’는 논리적 필연성 또는 개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명제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나 확실하지는 않지

만 어떤 일이 아마도 일어날 것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희정 (2009)은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와 ‘might, would’에 대해 이들이 ‘can, may, will’보다 상대적 거리감을 나타내어 청자에게 간접성의 느낌을 전달 하고 이로써 좀 더 정중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확실성의 단계 와 정중성을 고려하여 <표6>의 결과를 보면 원어민과 한국인 모두 논문 에서는 확실성이 가장 낮은 ‘might’의 사용은 자제하면서 중간 단계의 확실 성인 ‘may’와 예상성과 개연성을 나타내는 ‘would, should’를 활용하여 강 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정은 피하고 상대적인 거리감을 만들어 정중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동사의 사용을 확실성의 단계로 접근했을 때 Hyland & Milton(1997) 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Hyland & Milton(1997)은 홍콩 대학생의 영어 글쓰기를 통해 비원어민 화자가 적절한 확실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을 지적하고 인식 범주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부분에 활용된 어휘를 분석 하였다. 이 분류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원어민과 한국인은 어떤 인식 범주 를 많이 사용하는지 <표8>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8> 인식 범주에 따른 어휘 활용 양상

		원어민	한국인	유의도
확실성 (certainty)	actually	35	19	
	certain	47	41	
	indeed	20	16	
	in fact	7	3	
	know	141	40	
	think	135	22	
	총합	385	141	
	상대 빈도	1,125	664	<.001
개연성 (probability)	believe	279	18	
	probable	26	6	
	quite	22	24	
	seems	85	186	
	should	238	245	
	would	295	127	
	총합	945	606	
	상대 빈도	2,762	2,856	not sig.
가능성 (possibility)	could	220	119	
	may	473	219	
	might	86	72	
	perhaps	20	0	
	possible	157	178	
	총합	956	588	
	상대 빈도	2,794	2,771	not sig.
상시성 (usuality)	always	49	43	
	often	151	83	
	usually	21	39	
	총합	221	165	
	상대 빈도	646	777	not sig.

상대 빈도 값을 보면 원어민은 가능성의 인식 범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국인은 개연성의 범주를 선호하였다. 반면 원어민과 한국인 모두 확실정보다는 가능성과 개연성을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빈도에서 두 비교 집단이 강조어보다 유보어의 활용이 많은 것과 유

사한 양상이며 서법 조동사의 사용 의도와 동일하게 명제에 대한 확언에는 조심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법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사용에 전공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 분야별 조동사의 발생 수를 상대 빈도 측정으로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논문 분야별 조동사 빈도

	원어민 조동사 상대 빈도			한국인 조동사 상대 빈도		
	어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어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총 단어	166,940	74,017	115,388	99,406	43,051	55,190
may	1,324	1,743	1,482	1,348	813	906
might	282	162	373	533	163	217
would	922	1,527	572	835	441	453
should	928	473	572	1,056	1,370	1,468
could	689	392	1,239	724	395	544

전공별 비교에서 원어민이 어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모두 ‘may’의 활용이 높았고 한국인은 어학에서 ‘may’,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은 ‘should’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과 한국인의 비교에서는 원어민이 ‘may’를 많이 사용하고 한국인은 ‘should’의 활용이 빈번해 전체 유보어 빈도 순위와 일치하여 조동사 선택에 연구 분야의 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한국인의 ‘should’ 선호에 대한 원인을 추론해 보자면 어휘 습득 과정의 작용으로 생각된다. 보통 ‘should’의 사전적 의미를 충고나 ‘must’보다 약한 도덕적 의무로 먼저 익히기 때문에 예문(13a, b)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은 ‘should’를 주로 ‘해야 한다’로 활용하고 있었다. 앞서 <표7>의 확실성 분류 기준을 참고했을 때 개연성이나 중간 수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보어로의 활용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a.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demotivational factors revealed in this study, English educators in Korea should target the external factors first. (K2, 결론)

b. With regard to the what and how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in the EFL context, the fundamental aim of communication, i.e., to convey/exchange information/a mess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K1, 본론)

만약 한국인이 ‘should’를 유보어로 인식하지 않고 명제적 어휘로 사용했다면 한국인의 최대 빈도 유보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영역별로 최대 빈도 유보어를 분류하였다.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논문 영역별 최대 선호 유보어

	원어민	관찰 빈도	상대 빈도	한국인	관찰 빈도	상대 빈도	유의도
초록	suggest	8	2,499	should	8	1,785	not sig.
서론	may	127	1,966	may	17	1,328	not sig.
본론	may	236	1,032	should	160	925	not sig.
결론	may	106	2,324	should	62	2,812	not sig.

영역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보어는 원어민의 초록을 제외하고 모두 조동사이다. 원어민과 한국인 둘 다 전체 빈도와 동일하게 1순위 빈도인 ‘may’와 ‘should’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인의 ‘should’ 사용에 유보어 인식이 낮은 것으로 가정을 한 후 ‘should’를 제외

한 유보어 순위를 살펴본 결과 <표11>과 같이 원어민과 한국인의 어휘가 정확히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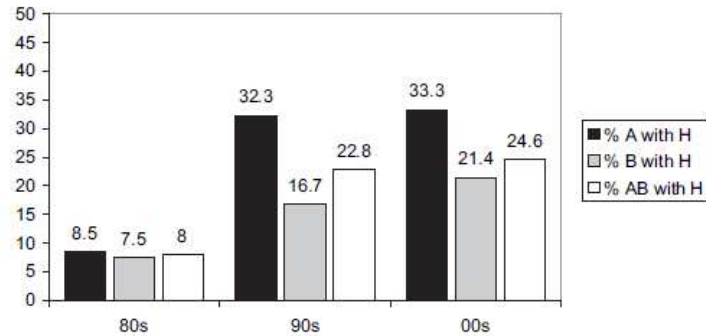
<표11> 한국인 ‘should’를 제외한 논문 영역별 최대 선호 유보어

	원어민	관찰 빈도	상대 빈도	한국인	관찰 빈도	상대 빈도	유의도
초록	suggest	8	2,499	suggest	5	1,116	not sig.
서론	may	127	1,966	may	17	1,328	not sig.
본론	may	236	1,032	may	159	919	not sig.
결론	may	106	2,324	may	42	1,905	not sig.

‘should’의 유보어 사용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문 분석과 <표10>, <표11>의 결과를 볼 때, 한국인은 ‘should’를 우리말 번역의 영향으로 ‘해야 한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주장의 보류나 확신의 단계를 낮추는 유보어로서의 활용은 부족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필자가 명제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고자 할 때 한국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어휘는 ‘may’라고 할 수 있다.

2) 동시성

유보어는 무리지어 발생하는 동시성의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Gillaerts & Van de Velde(20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것을 유보어와 강조어, 태도어의 조합(The combination of hedges, boosters and attitude markers)으로 설명하고 있다. Gillaerts & Van de Velde(2010)가 제시한 표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유보어와 강조어, 태도어의 조합(Gillaerts & Van de Velde, 2010)

<그림3>에서 연도별 변화를 보면 유보어와 함께 발생하는 태도어(A with H)와, 유보어와 강조어(B with H), 유보어와 태도어, 강조어(AB with H)의 조합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담화 공동체의 확장(discourse community expand)으로 인한 학술적 기풍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담화 공동체가 확장되면서 저자의 지식보다는 학술적 입장이 우선시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견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저자로 하여금 강조어와 태도어(attitude markers, 표1 참조)를 많이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유보어와 함께 강조어와 태도어의 발생이 빈번해졌다고 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할 때 2000년 이후 논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조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원어민과 한국인 코퍼스에 나타난 예문은 (14a-c)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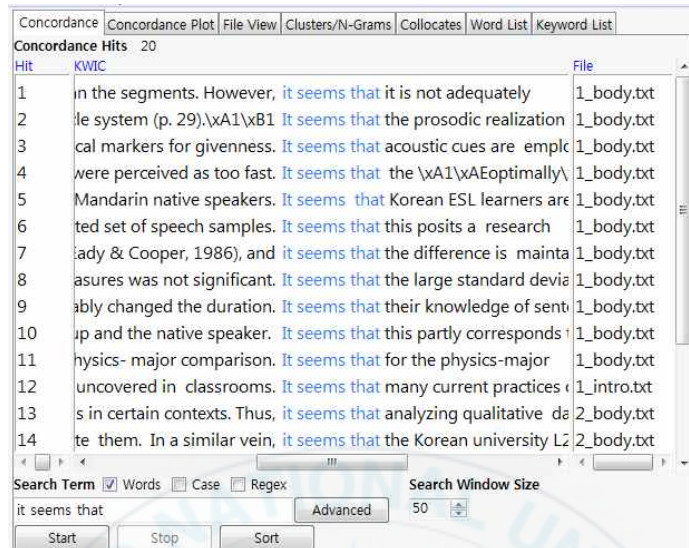
- (14) a. This notion would hold true for verbs as it would for nouns, and would indicate that individuals would have higher accuracy when retrieving more frequently used verbs (or word frequency effect). (E1, 서론)

- b.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though the Cronbach's alpha for the question items were high, one-sample t-tests revealed demotiv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and current pilot group. Hence, it can be assumed that this pilot group may perceive demotivational factors differently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in Falout et al.'s (2009) sample. (K2, 본론)
- c. However, such assessments might potentially add value to the learning environment. Both teachers and students fresh to the peer-assessment experience may show concern over matter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E10, 결론)

예문(14a, b)와 같이 선행한 유보어 이후 이어지는 문장에서 유보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필자의 태도에 일관성을 더하거나, 예문(14c)처럼 유보어 'may'와 강조어 'show'가 같이 발생하여 강조어에 대한 필자의 확신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자로서 되도록 단정적인 언급은 피하려는 조심성의 결과로 보인다.

3) 선호 동사

조동사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보어로 원어민은 'indicate*'를 선호하였고 한국인은 'seem*'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엄철주 외 (2009)의 연구에서 소개한 원어민, 한국인 특별선호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인의 'seem*' 동사 사용이 흥미로웠다.



<그림4> 한국인의 ‘it seems that’ 발생

<그림4>에서 보듯이 한국인에게 발생한 ‘seem*’의 전체 원빈도 186회 중 20회가 ‘it seems that’이었고 7회가 ‘it seemed that’으로 총 27회 나타났다. 반면 원어민은 이러한 형태가 단 1회 발견되어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원어민의 ‘seem*’ 사용은 대부분 ‘seem* to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seem* that절’의 활용은 한정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원어민은 ‘argue*’ 동사를 단 6차례 사용했으나 한국인에서는 총 58회 나타났으며 이 중 47회가 ‘argue* that절’을 취하고 있어 한국인이 동사의 목적어 사용에 구(phrase)보다는 절(clause)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어민은 ‘indicate*’ 동사를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였다. 결과 도출이나 자료 분석 또는 이전 연구를 소개할 때 등 주어에 제한 없이 직접적인 참여를 보류하는 동사로 ‘indicate*’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였다. 본문에 나타난 예는 (15)와 같다.

(15)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improvement in... (E10, 결론)

Table 3 indicates student demographics... (E9, 본문)

Data indicates that some factors were cited... (E3, 결론)

Renski(2009) indicated little scholarly research... (E8, 본문)

또한 원어민은 ‘feel*’ 동사를 제 3자의 생각을 읊길 때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인은 단 17회만 발견되어 논문에서 ‘feel*’ 동사의 활용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 설명할 ‘perhaps’의 낮은 선호와 유사하게 다소 개인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여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4) 비인칭 구문

한국인의 ‘possible*’ 선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앞서 동사 ‘seem*’과 유사하게 특정 구문인 ‘it is 형용사’의 사용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코퍼스에서 비인칭 구문을 분류해 보았다. 관찰된 원빈도는 <표12>와 같다.

<표12> 비인칭 구문 원빈도

	원어민	한국인
It seems/seemed that	1	27
It is possible	12	17
It is impossible	0	16
It is/was necessary	0	21
It is difficult	0	12

표의 수치를 보면 원어민이 한국인에 비해 비인칭 구문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Hyland & Milton(1997)의 연구에서 ‘personalized vs impersonalized forms’로 소개하고 있는데 인칭

구문은 정확히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는 반면, 비인칭 구문은 주장을 언급할 때 필자로 하여금 개인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가려 지적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또한 Givón(1993: 409)은 이것을 인식론적 존경(epistemic deference)의 형태로 모든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라 설명한다. 보통 높은 지위의 대화자를 만날 때 화자는 비인칭 구문을 통해 단언보다는 낮은 확실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조를 부드럽게 하고, 높은 권위가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는 앞서 전체 빈도에서 한국인이 원어민보다 유보어를 많이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인은 명제에 대한 확신을 유보어로 보류하고 있으며, 독자의 해석과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학술 공동체의 평가를 의식해 비인칭 구문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일반화된 견해일 가능성을 남겨 주장에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코퍼스에 나타난 예문은 (16a-d)와 같다.

- (16) a. Thus, it is possible to suppose that they produced the diphthongs without sentence stress because the inherent vowel duration of diphthongs is longer than that of monophthongs. (K1, 본론)
- b. However it is impossible to improve the bending machine because it is one of constraints in the task. (K10, 본론)
- c. To obtain the good design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solve contradictions rather than to compromise with them. (K10, 서론)

- d. It can therefore be inferred that when Korean learners are demotivated, it is difficult to remotivate them. (K2, 본론)

5) 선호 부사

그 외 유보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어민의 'perhaps' 사용이다. 원어민에게 20회 관찰된 이 단어는 한국인에서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Park(2006)과 Kim. H(2014)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perhaps'가 아주 낮은 단계의 추측과 개인적인 요청이나 제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은 글쓰기, 특히 논문이나 공식적인 글에서 'perhaps'의 사용은 'feel' 동사처럼 다소 개인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여 자제하는 듯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숫자 앞에 '대략'의 의미로 쓰이는 'about'과 'approximately'의 사용에 편차가 두드러졌다. 원어민은 'about'을 12회, 'approximately'를 45회 사용하여 'approximately'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about'을 50회, 'approximately'를 14회 사용하여 'about'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예문은 (17), (18a-b)와 같다.

- (17) I think that women need to be exposed to the Engineering and Math degrees and careers at an earlier age, middle school or perhaps even elementary. This way the girl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these degrees are exposed to it earlier and therefore will be more likely to make it their goal. (E6, 본론)

- (18) a. More than 40% of the Valerdi [2005] data are in the range between $400 < R < 1100$, and the engineering

effort in this range varies from approximately 1.1 person-years for 1100 requirements to approximately 78 person-years for 750 requirements. (E5, 본론)

- b. The strongest predictor, entered first, was articulation rate, followed by space and MLR. With these variables in the final model, about 75% of the variance can be explained. (K1, 본론)

3.2.2. 강조어 상위 빈도 어휘와 특징

강조어에는 동사의 사용이 많았고 상위 15위까지의 목록은 <표13>과 같다. 유보어와 동일하게 비율은 전체 강조어 관찰 빈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15위 밖 1% 미만의 어휘는 제외하였다.

<표13> 상위 빈도 강조어

	원어민	상대 빈도	비율	한국인	상대 빈도	비율
1	find*	956	14%	show*	2,493	37%
2	believe*	816	12%	find*	1,056	16%
3	show*	702	10%	most	650	10%
4	most	675	10%	establish*	217	3%
5	know*	406	6%	clear*	198	3%
6	think*	395	6%	always	179	3%
7	clear*	322	5%	highly	170	3%
8	demonstrate*	240	4%	demonstrate*	113	2%
9	establish*	213	3%	think*	104	2%
10	realize*	208	3%	certain*	99	1%
11	never	167	2%	know*	99	1%
12	always	143	2%	never	99	1%

13	really	143	2%	actually	90	1%
14	certain*	137	2%	believe*	85	1%
15	highly	117	2%	true*	85	1%

이 중 원어민만 ‘of course’ 3회, ‘no doubt’ 1회 사용하여 한국인보다 두 종류가 더 많았다.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어민의 ‘believe*’ 사용인데 원빈도 279회 중 E3 논문 본문에서만 175회 발견되었다. 이는 박사 과정의 실습 교생을 대상으로 한 저학년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필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터뷰를 분석해 옮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believe*’를 사용하고 있었고 예문은 (19)와 같다.

(19) Sheryl believes that teachers must attend to children’s safety need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o this end, she believes that teachers must focus o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3, 본론)

필자의 분석으로 사용된 강조어이긴 하나 특정한 글쓴이의 선호에 의한 결과라 논문에서 원어민의 ‘believe*’ 사용 빈도를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인의 편중된 동사 사용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루도록 한다.

1) 편중된 동사 사용

한국인의 ‘show*’와 ‘find*’의 선호는 엄철주 외(2009)와 Kim. S(2010)도 동일한 결과로 제시하였다. <표13>에서 보듯이 한국인은 ‘show*’ 동사를 거의 40퍼센트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표6>의 유보어 어휘 사용 비율과도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국인은 예문(20a)처럼 도표를 설명할 때나 예문(20b)처럼 연구 결과를 언급할 때도 주로 ‘show*’를 사용하여 특정 동사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 a. *Figures 3a and 3b shows the still shots...* (K1, 본론)
Table 9 shows the reliability scores... (K9, 본론)
Figure 5.5 shows two examples of initial... (K5, 본론)
Figure 7 shows three discussion topics... (K9, 본론)
- b.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learning.. (K4, 본론)
The verification *study* showed that new.. (K8, 초록)
Survey *studies* show that learners often... (K3, 본론)
The *findings* showed that only word... (K1, 본론)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ean scores... (K6, 본론)

반면 상위 빈도 어휘 중 결과 분석이나 시사점을 언급할 때 많이 발생한 단어가 강조어는 ‘show*’와 ‘find*’이고 유보어 ‘indicate*’와 ‘suggest*’였는데 원어민은 예문(21)처럼 유보어와 강조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4가지 동사를 다양하게 구사하여 주장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 (21)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e business curriculum... (E7 결론)
In summary, *findings* indicate that the novice... (E3 결론)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blems... (E5, 서론)
Even though the *study* found no statistically... (E6, 결론)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the... (E1, 서론)

2) 인지 동사의 부족

한국인의 편중된 동사 사용은 ‘know*’와 ‘think*’의 부족한 활용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원어민의 ‘know*’ 선호는 Kim. S(2010)에서도 원어민 최대

빈도 어휘로 언급된 바 있다. 강조어 동사를 통해 한국인의 제한적 동사 사용을 확인하였다. 강조어에서 발생한 동사의 전체 상대 빈도를 100으로 했을 때 각 단어의 사용 비율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 강조어 동사 사용 비율

원어민	상대 빈도	비율	한국인	상대 빈도	비율
find*	956	24%	show*	2,493	58%
believe*	816	21%	find*	1,056	24%
show*	702	18%	establish*	217	5%
<u>know*</u>	412	10%	demonstrate*	113	3%
<u>think*</u>	395	10%	<u>think*</u>	104	2%
demonstrate*	240	6%	<u>know*</u>	99	2%
establish*	213	5%	believe*	85	2%
realize*	208	5%	prove*	80	2%
prove*	20	1%	realize*	80	2%

원어민이 ‘find*’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표13>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체 강조어의 10% 수준이며 동사의 사용 비율로는 24%로 1/4 수준이다. 그 외 ‘show*’를 제외하면 필자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believe*, know*, think*, realize*’와 같은 인지 동사가 고루 사용되었다.

반면 한국인은 ‘show*’ 동사가 전체 강조어의 37%였으며 동사 사용 비율은 58%에 달한다. 강조어 동사 절반 이상이 ‘show*’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한국인 학습자는 원어민과 대조적으로 ‘think*, know*, believe*’ 동사의 사용이 2%에 지나지 않아 제한적이다. 이는 앞서 유보어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하게 한국인은 글쓰기에서 되도록 단정적 주장은 피하고 독자의 해석과 평가를 의식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논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상위담화의 개념을 알리고 화용 인식 향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학습자와 원어민의 박사 학위 논문 각 10편을 대상으로 글쓰기에서 필자가 인식적 태도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되는 유보어와 강조어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두 비교 집단에 유보어, 강조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한 후 본문 분석으로 한국인과 원어민의 어휘 사용에 특징을 살펴보았다.

빈도 양상에서 한국인과 원어민은 강조어보다 유보어의 사용이 많았다. 이는 논문의 장르적 특성으로 해석되며 특히 유보어 빈도가 결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명제의 단정을 보류하고 논지에 조심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인에게 두드러져 독자의 해석과 학술 공동체의 평가를 원어민보다 더 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조어는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본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전체 사용량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지 서론보다 초록에서 많은 강조어가 발생하여 필자의 명제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유보어와 강조어에 사용된 단어 개수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제한된 어휘 목록에서 동일하게 관찰된 것만을 측정한 수치라 이것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어휘 사용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어휘 양상은 먼저 유보어의 특징으로 첫째, 최대 빈도 어휘는 조동사였으며 서법성 발현을 위해 사용되었다. 원어민은 ‘may’를, 한국인은 ‘should’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한국인의 ‘should’는 ‘해야 한다’의 사용이 많아 유보어로서의 인식과 활용은 부족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한국인과 원어민 모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유보어는 ‘may’로 확인되었다. 이는 ‘would’와 함께 중간 단계의 확실성을 나타내어 단정은 피하고 상대적 거리감으로 정중

성을 더 하였다. 조동사를 포함한 유보어로 사용된 단어들을 인식 범주의 4단계로 나누었을 때 한국인과 원어민은 확실정보다는 개연성의 범주를 선호하여 서법 조동사 사용 의도와 동일하게 명제에 대한 확인은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보어는 동시성을 보였다. 비슷한 의미 정도의 유보어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유보어와 강조어가 같이 등장하여 강조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인은 ‘seem*’ 동사를 선호했는데 특히 ‘it seems that’의 형태로 활용하여 ‘seem*’의 목적어가 주로 ‘부정사’인 원어민과 차이를 보였다. 원어민은 유보어 동사로 ‘indicate*’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인은 형용사 ‘possible*’을 빈번히 사용했는데 주로 ‘it is 형용사’의 형태로 비인칭 구문이 주는 객관성을 이용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일반화된 견해일 가능성을 남겨 주장에 소극적인 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사에서 원어민만 ‘perhaps’를 사용하였고 숫자 앞에 쓰이는 유보어로 한국인은 ‘about’을, 원어민은 ‘approximately’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조어의 특징으로 첫째, 한국인은 ‘show*’ 동사만을 지나치게 사용하였고 원어민은 ‘find*’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나 ‘show*, believe*, know*, think*’ 또한 고르게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인은 원어민에 비해 ‘know*’와 ‘think*’ 동사의 활용이 부족하였다. 필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인지 동사의 사용을 자제하여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논지를 기술하는 특징을 보여 이 또한 유보어 분석과 동일하게 평가와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위의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분석한 코퍼스의 크기가 작았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논문이 한국인

과 원어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조동사 ‘can’과 ‘will’의 상위담화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한국인은 유보어를 많이 사용하여 주장에 조심성을 보였고 어휘 선택은 제한적이었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외에 화용적 기능의 이해는 부족하였다. 즉 어휘가 가지는 상위담화 기능으로 필자와 독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EFL 환경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어휘 교육은 사전적 뜻에 한정되지 않은, 상위담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단어의 화용적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화용 인식을 높인다면 보다 향상된 어휘 사용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문. 2014. 상위담화 표지어 데이터 비교 연구(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김민정. 2010. 상위담화 표지어 연구 - 개정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 김철규. 2009. 코퍼스에 기반한 영국 신문의 논설문과 한국 대학生の 영어 논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metadiscourse) 비교 연구.
「담화와 인지」 16(3), 65-88.
- 김희나. 2012. 외국어 교육 분야의 영문초록에 나타난 인식 서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서창숙, 김정운, 김여리, 이석형. 2010. 유의어 사이의 연어관계 차이: Almost와 Nearly의 연어관계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언어연구」 26(3), 569-593.
- 엄철주, 김정아, 남혜은, 오유나. 2009. 영어 L1과 L2 사용자의 학술 논문에 나타난 상위담화 비교 분석. 「담화와 인지」 16(2), 63-90.
- 정희정. 2009.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의무 서법조동사(denotic modals) 습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Back, J. 2014. A corpus-based study of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L1 and L2 academic research articles: writer identity and reader engagemen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70, 213-236.
- Bouton, L. 1999. Developing nonnative speaker skills in interpret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s in English.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70.

- Bunton, D. 1999. The use of higher level metatext in Ph. D the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18(1), 41-56.
- Crismore, A. 1983. *Metadiscourse: What is it and How it is Used in School and Non-School Social Science Text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 Crismore, A. 1984. The rhetoric of textbooks: metadiscours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6(3), 279-296.
- Crismore, A. 1989. *Talking with Readers: Metadiscourse as Rhetorical Act*. New York: Peter Lang.
- Crismore, A., Markkanen, R. and Steffensen, M. 1993. Metadiscourse in persuasive writing: a study of texts written by American Finnish university students. *Written Communication*. 10(1), 39-71.
- Dahl, T. 2004. Textual metadiscourse in research articles: a marker of national culture or of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Pragmatics*. 36(10), 1807-1825.
- Gillaerts, P. and Van de Velde, F. 2010. Interactional metadiscourse in research article abstract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9, 128-139.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II.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2002. 「기능영문법 II」
 서울: 박이정.
- Gumperz, J. 1977. Sociocultural knowledge in conversational inference.
 in M Saville-Troike (Ed.). *28th Annual Round Table Monograph Seri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arris, Z. 1959. Linguistic transformations for information retrieval. *Papers in Structural and Transformational Linguistics*. Dordrecht, Holland: Reidel.
- Holmes, J. 1984. Modifying illocutionary force. *Journal of Pragmatics*. 8, 345-365.
- Holmes, J. 1988. Doub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9, 21-44.
- Hu, G. and Cao, F. 2011. Hedging and boosting in abstracts of applied linguistics articles: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Chinese-medium journals. *Journal of Pragmatics*. 43, 2795-2809.
- Hyland, K. 1998. Persuasion and contest: the pragmatics of academic meta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4), 437-455.
- Hyland, K. 2000. *Disciplinary Discourses: Social Interaction in Academic Writing*. London: Longman.
- Hyland, K. 2005. *Metadiscourse*. London: Continuum.
- Hyland, K. And Milton, J. 1997. Qualification and certainty in L1 and L2 students' writ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6(2), 183-20.
- Hyland, K. and Tse, P. 2004. Metadiscourse in academic writing: a reappraisal. *Applied Linguistics*. 25(2), 156-177.
- Kim, D. 2013. Hedge use in native English speakers' and Korean EFL students' academic writing. Unpublished MA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H. 2014. Metadiscourse markers in magazine texts: a comparative

- study of the English L1 and L2 writing.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0(2), 281-310.
- Kim, S. and Uhm, C. 2013. L1 and L2 English writers' metadiscourse use in the argumentative essays of English newspap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4), 165-183.
- Kim, S.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metadiscourse in L1 and L2 argumentative writing of English newspapers. Unpublished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M. 2006. Metadiscourse in English academic writing: focusing on research papers by Korean students and international researchers. Unpublished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Ryoo, M. 2008. Metadiscourse in L1 and L2 research articles: a contrastive analysis of code glosses in English and Korean. *English Language Teaching*. 20(4), 161-179.
- Salager-Meyer, F. 1994. Hedges and textual communicative function in medical english written discour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13(2), 149-170.
- Thomas, J.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 Vande Kopple, W. 1985. Some exploratory discourse on metadiscours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6, 82-93.
- Williams, J. 1981. *Style: Ten Lessons in Clarity and Grace*. Boston: Scott Foresman.

부록 1

영어 원어민 코퍼스 자료 목록

논문 번호	저자	연도	제목	발행처
1	Lauren Elaine Graham	2009	Verb naming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agrammatic aphasia: efficacy data	University of Maryland
2	Sandi McCann	2008	Family message journals: a tool for writing instruction combined with parental involvement	Walden University
3	Karin H Spencer	2008	Exploring the impact of problem-focused case writing pedagogy on novice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concerning effective instructional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and famil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4	Joanne M Garrison	2012	Achievement and high school completion rates of hispanic students with no english language skills compared to hispanic students with some english language skills attending the same high school in an immigrant responsive city	University of Nebraska
5	Michael W Grenn	2014	A theory of information quality and a framework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 requirements engineering proces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6	Jessica M Pena-Lopez	2011	A study of persistence of undergraduate women majoring in engineering and math	Florida Atlantic University
7	Randall S Andre	2016	The factors required for winning the business simulation game: a regression analysis	Capella University
8	Arlen M Griffey	2010	Infrastructure disaster management: Insight from small business leaders after a mega disaster	University of Phoenix
9	Michael Shaw	2015	The effects of face-to-face and online peer feedback on business students' perceptions of quality and effectiveness	Montana State University
10	Marsha Cagle West	2010	Effective software engineering leadership for development programs	University of Phoenix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 자료 목록

논문 번호	저자	연도	제목	발행처
1	Yang In-Young	2015	Korean EFL learners' use of sentence stress: focusing on L2 comprehensibility and acoustic correlates in produ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	Kim Chun-yong	2015	Demotivational factors influencing compulsory English language learn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an EFL context	Korea University
3	Ryu Je-sun	2005	Aspects of dictionary use by korean efl college students	Yonsei University
4	Lim Nam-sil	2012	Korean-English bilingual's sentence processing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English	Konkuk University
5	Im Kwan-youn g	2013	Science-based methodology for business Model creation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6	Seo Hyeon-yeon g	2015	Competitive marketing strategy of O2O platform business : defender strategy of korean delivery application market	Sungkyunkwan University
7	Jeon Byung-Joo	2009	Relationships amo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marketing strategy, employment brand equity and intention to pursue job opportunity in hospital industr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8	Chun Yoon-Young	2014	Life cycle-based generic business strategies for sustainable business models	Ajou University
9	Phi Seung-woo	2014	Methodology for intangible assets valuation of civil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in korea	Hanyang University
10	Park Yong-Taek	2007	Development of practical process for conceptual design with engineering contradic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록 2

상위담화 표지 유보어, 강조어 어휘 리스트(Hyland, 2005)

Boosters

actually
always
believe
believed
believes
beyond doubt
certain
certainly
clear
clearly
conclusively
decidedly
definite
definitely
demonstrate
demonstrated
demonstrates
doubtless
establish
established
evident
evidently
find
finds
found
in fact
incontestable
incontestably
incontrovertible
incontrovertibly
indeed
indisputable
indisputably
know
known
must
never
no doubt
obvious
obviously

of course
prove
proved
proves
realize
realized
realizes
really
show
showed
shown
shows
sure
surely
think
thinks
thought
truly
true
undeniable
undeniably
undisputedly
undoubtedly
without doubt

Hedges

about
almost
apparent
apparently
appear
appeared
appears
approximately
argue
argued
argues
around
assume
assumed

broadly	on the whole
certain amount	ought
certain extent	perhaps
certain level	plausible
claim	plausibly
claimed	possible
claims	possibly
could	postulate
couldn't	postulated
doubt	postulates
doubtful	presumable
essentially	presumably
estimate	probable
estimated	probably
fairly	quite
feel	rather x
feels	relatively
felt	roughly
frequently	seems
from my perspective	should
from our perspective	sometimes
from this perspective	somewhat
generally	suggest
guess	suggested
indicate	suggests
indicated	suppose
indicates	supposed
in general	supposes
in most cases	suspect
in most instances	suspects
in my opinion	tend to
in my view	tended to
in this view	tends to
in our opinion	to my knowledge
in our view	typical
largely	typically
likely	uncertain
mainly	uncertainly
may	unclear
maybe	unclearly
might	unlikely
mostly	usually
often	would